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지내 시기를 빌며,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 성서일기 범위가 잠언을 마치고 3월 1일(화)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 공동체학교들이 이번 주간에 새 학기를 개학합니다.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9 호

2022년 2월 2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마지막에 축하를, 새 시작에 축복을

눈이 내리다 비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최근 들어 겨울이 길어졌다곤 하나,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3월이 되면 봄이 온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곧이어 왕성한 생명의 색깔이 이곳저곳에서 돌아날 것에 기대가 큼니다. 싸늘하고 단조롭게 보이던 세상에 온갖 새로운 출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것은 단지 자연의 모습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대개 봄과 함께 합니다. 그것은 설날의 어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과 문화재청에서 말하는 새해의 첫 날, 설날의 어원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낫설다'라는 말의 '설'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한다는 의미의 '선다'라는 말의 발음이 바뀌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의 옛 우리말 '설다'에서 따왔다는 설입니다. 현대에 있어선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장 대중적인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서, 대개는 양력 2월에 '구정'이란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구정이 끼어있는 1-2월은 흔히 졸업의 달로도 불리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가슴 떨리는 사건입니다. 여러 의미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떨리게 체감할 때는 청소년 나이대의 학생이 졸업과 입학할 때겠지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설날의 어원과 마찬가지로 낫설음과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됨을 의미하기에, 졸업식이나 입학식은 여러 감정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졸업식은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끝의 단계이며, 입학식은 새로운 시작의 단계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보통 커다란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학생과 부모님 모두가 초청되어 치러집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는 '떨리고 설레다' '시원섭섭하다' 같은, 한 가지의 단순한 말로 **선교와 섬김**

할 수 없는 감상이 가슴에 깃듭니다. 특별한 의미들이 그 시간 속에서 살아 숨쉬기에 그렇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사랑방공동체학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는 감동도, 축하도, 기쁨도, 아쉬움도, 눈물도 있었습니다.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비교적 작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새기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서로가 표현하고, 앞으로의 길을 향한 덕담이 오고가는 멋진 장이었습니다. 멋쩍어하면서도 단상 앞에 정연히 서있는 졸업생들을 보니, 그들의 화창한 미래를 향한 강한 확신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부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의 교육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작은 일이든, 커다란 일이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과 삶의 방식이 정착된 사람이라면 무엇에 절망할까요? 계속해서 새로움에 도전하며, 옳은 길을 나아가려 애쓰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이어 입학식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급성장하는 시기의 학생들이 익숙했던 환경에서 옮겨져, 낯선 사람과 장소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출발을 합니다. 반복되는 시작과 종료속에서 많은 배움이 있도록,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격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이 험한 시기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며 주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잘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 한주간 말씀

“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

< 잠언 1장 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28장 15-28절

제목 :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2 462 454 424

15-17 악한 통치자 vs 정의로운 통치자

해석: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에게 힘(억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한 힘을 사용해야 한다.

적용: 부정한 이익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기르자.

18-23 바르게 꾸짖는 사람

해석: 사람이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생활하면 죄와 타협하려고 한다.

적용: 자기가 편한 것보다는 신실한 삶을 선택하자.

24-26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해석: 지혜로운 사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욕심(물질-보이는 것, 논쟁-인정받는 것, 생각-아집, 이념, 마지막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적용: 욕심(물질, 인정, 아집)을 버리고 주님을 의뢰하자.

27-28 도와주는 사람

해석: 도와주는 사람, 많이 나타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적용: 관계 맺는 삶, 연합의 삶을 추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자.

## 성서일기

##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대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꽃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순탄한 삶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삶은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선택의 기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앉는 절망에서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도무지 변할 기미조차 안 보이는 자녀 앞에서 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를, 분쟁 대신에 평화를, 이익 대신에 손해를 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이들이 평탄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공하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난의 삶을 우리 곁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불안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뒤치다꺼리가 끝이 없는 자식이지만 여전히 사랑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차영희 목사, [자녀를 살리는 부모기도] 중에서.

## 지체들의 삶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84 : 1-4

10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5 : 8

27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잠언 1 : 1 - 7

183

“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 정태일목사

설교자  
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42

51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장미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난리의 소문들로 어지럽습니다.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고통이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멈추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근본.      본문은 잠언서의 서론으로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은 본문의 서론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은 가운데 부분으로 잠언이 주는 유익함과 그 결과에 대한 예시들을 열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서론의 결론으로 잠언서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중심내용은 ‘지혜’이고, 잠언서의 주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믿음이다.      지혜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와 본질적인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잠언은 삶의 경험과 신앙의 년륜이 있는 어른들이 삶의 경험에서 깨달은 지혜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문장에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즉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본문 중에서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4>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력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개인과 전체 등을 구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현 세대는 똑똑한 세대이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영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공동체학교 졸업식 송사와 답사 >

## 송 사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학교 서기 김재효입니다.

먼저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 학생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 누나들이 벌써 졸업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었던 행복한 추억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꾸러기 친구들! 졸업해서 어린이학교에서 가서도 늘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어린이학교에 와서 함께 지낼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렙니다.

어린이를 졸업하는 형, 누나들! 형, 누나들과 함께 했던 멋 부리는 날, 에버랜드 여행, 스승의 날, 캠프 등등 함께 한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저희를 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누나들 덕분에 저희들이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학교에 가든지 어린이 학교에서처럼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쟁이 형, 누나들! 졸업 후에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시고 새로운 곳에서도 늘 씩씩하게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사

안녕하세요. 저는 멋쟁이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최재원입니다. 졸업식에서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정말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 어색하기도 아쉽기도 하네요. 돌아보면 저는 이 사랑방공동체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꾸러기 때부터 어린이, 멋쟁이까지요. 엄마 손 잡고 처음으로 꾸러기에 온 날, 제가 잊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온기와 활짝 웃으며 처음 본 저를 반겨주던 얼굴들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꾸러기에서는 이웃과의 사랑을 배웠고 어린이에서는 이웃과의 행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멋쟁이에서는 이웃을 섬기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멋쟁이를 다니며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설레었던 1학년 첫 개강여행, 나의 한계를 맞보고 서로 더 애뜻해질 수 있었던 도보여행, 저 배움과 가르침

리산, 가장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났던 중국생활 등 하나 하나 나열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말랑했던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깊이 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물과 햇빛이 있고 비료가 필요하듯이 경험과 배움들은 멋쟁이학교가 제게 준 양분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에서부터 한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고가 필요하듯이 지금의 저를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해준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 선생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름 피약벌에서 땀 흘리며 받을 가꾸듯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때론 시들어버린 모습을 보며 혼자 마음을 애태우셨을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인내와 사랑이 올해 또 이 앞에 있는 소중한 졸업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옆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채워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6년간 멋쟁이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제 자신을 사랑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입으로 고백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있을 재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참 수고했고 잘 배워왔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분명 힘들고 화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멋집니다. 저도 그 과정을 똑같이 겪어 왔기에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들은 훨씬 값지고 내 자신을 깊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외롭고 힘들다면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멋쟁이학교 졸업생들은 언제나 멋쟁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으니깐요.)

저는 14년간 즐거운 집에서 살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보려 합니다. 너무 오랜시간 자라왔던 집이기에 쉽사리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향은 생각날 때 찾아오게 되듯이 계속 찾아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랑방공동체 학교라는 집에서 사랑과 행복과 섬김을 배웠던 것처럼 새로운 곳에 가서도 이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수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든 해낼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방공동체가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출발한지가 38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는 비교적 오래된 공동체에 속하지만 목표로 가기에는 이제 걸음마를 떴다 정도일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가치관도, 우선순위도, 일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반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공동체 멤버도 충분치 않습니다. 외적 여건도 어렵지만 내적 문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등으로 그때 그때마다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을 결정하기에 갈등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공동체생활 중에 상처, 분노, 감정 등이 쌓여져 갈 수 있고 문제해결, 치유회복이 안 되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회복의 과정은 어렵고, 더디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믿기에, 이 시대의 답이라고 믿기에 시작하였으므로 삶의 과정에서의 문제해결, 치유회복의 능력은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 과정이 더딜 수 밖에 없고 사람의 변화는 더딜 수 밖에 없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 함께하고 돕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내적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검증받는 성서일기, 함께하는 교제를 통한 피드백입니다.

성서일기와 피드백을 잘 활용하여 차별없는 존중과 신뢰,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므로 개인구원, 공동체 구원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골로새서 3:1-4

인도 : 장영미 전도사

기도 :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에서 군을 파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바스 주민 4만 여명이 러시아로 피란길에 올랐고, 이들은 모두 전쟁 난민으로 이 추위 속에 난민 캠프에서 지내야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할 경우 종교의 자유는 없어지고, 기독교 박해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영토와 세력 다툼에서 희생되는 무고한 자들의 목소리에 국가 지도자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특히, 우크라이나 개신교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늘문 공동체>

(1) 생명샘전인치유사역 연구원 발전을 위해

(2) 영, 혼, 육, 자연, 먹거리치유를 위한 힐링타운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랑방공동체 학교 졸업, 입학>

(1)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공동체 식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2) 사랑방공동체 학교의 졸업과 입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새봄을 맞아 더욱 활기차고 서로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공동체학교가 한 주간 봄방학을 맞아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본격적으로 새봄맞이 준비를 한 한 주였습니다. 주방에 조리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주 중에 진행되었고, 공동체 정원은 가지치기와 묵은 나뭇잎 거두기를 했습니다. 두껍게 쌓여있는 나뭇잎을 걷어내고 보니 파릇 파릇 새싹이 이미 올라와 있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고 어김없이 새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마무리하면 새싹 같은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사랑방공동체가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영미 전도사>